지난 5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0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입학식' 행사에서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과 10기 원우들이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리더스 원우 한마음 돼 지역 발전 이끌어 갑시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0기 입학식…원우 등 100여명 참석

배우 이광기·'트렌드 코리아' 김난도 등 유명 강사진 12일부터 강연

"꽃피는 봄날, 새로운 인연을 시작할 수 있게 돼 설렙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0기 입학식이 지난 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과 10기 원우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축사와 축하공연, 1학기 일정 안내, 원우 소개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본격적인 입학식에 앞서 열린 축하공연에서는 팝페라그룹 빅맨싱어즈와 플루티스트 나리가 무대에 올랐다. 우선 플루티스트 나리는 '아다지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진또배기'를 플루트 연주와 노래로 선보였다. 팝페라그룹 빅맨싱어즈도 '볼라베', '둥지', '네순 도르마', '우정의 노래' 등 공연을 펼치면서 흥을 나눴다.

김여송 사장은 축사를 통해 "광주일보가 올해 창간 70주년을 맞았고, 리더스 아카데미도 1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다"며 "70년이라는 세월동안 호남예술제와 3·1절 전국마라톤, 청소년축제 등 지역 문화예술 창달에 앞장서 왔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리더스 아카데미도 원우 700여명을 배출했고, 이들은 각계 각층에서 호남지역을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원우 모두가 한 가족이 돼 기쁨과 슬픔, 지혜를 나누며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창간 70주년, 리더스 아카데미 10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는 뜻 깊은 해라는 점에서 광주일보 전 임직원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나고 알찬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빼놓지 않았다.

한편 광주일보 제10기 리더스 아카데미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다. 1학기 첫 번째 강연으로 오는 12일 배우이자 아트디렉터로 활동하는 이광기를 비롯해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바이올리스트 조윤범, 행불선원 월호스님, 60대 트레이너 조우순, 스타 도슨트 정우철, '포노 사피엔스' 저자 최재붕, 심리학자 김태훈, '트렌드 코리아' 저자 김난도 등 국내 유명 강사진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밖에 음악·문화 공연행사와 연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늘 참여하고 싶은 즐거운 원우회 만들겠다"

10기 원우회장 김승구 승원건설그룹 회장

"광주·전남지역 리더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김승구(49) 승원건설그룹 회장이 '광주일보 제10기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회장으로 선임됐다.

김 회장은 광주일보 창사 70주년, 리더스 아카데미 10주년이라는 의미가 남다른 시점에서 원우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부담스러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 또한 느낀다고 했다.

앞서 7기 원우로 활동했던 신임 김 회장은 "올 한 해 모든 원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깊은 정을 쌓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원우 모두가 바쁜 와중에서도 좋은 뜻을 가지고, 기대감을 품고 리더스 아카데미에 찾아와 주셨다"며 "다양한 강연을 통해 지식을 쌓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공부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늘 참여하고 싶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원우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움을 통해 개인의 성장을 이뤄내는 것과 동시에 좋은 사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친목과 단합, 유대감에 중점을 두겠다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외부활동이 위축되고 움츠러들었던 시기를 보낼 수 밖에 없었을 원우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개강이 다소 늦어지고 그동안 모임이 위축됐던 게 사실이다"며 "수업 끝난 뒤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을 자주 만들고 원우들이 빨리 친해져 원우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초창기 정부의 방역지침을 주시해 단합 프로그램을 최대한 추진해보고자 한다"고 했다.

김승구 회장은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우들의 참여다. 의미 있는 행사도 참여해야 이뤄질 수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우회를 만들어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가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명감을 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나주시숲체원 등과 업무 협약

주경님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과 황인욱 국립나주숲체원 원장, 김운기 효령노인복지타운 본부장(왼쪽부터)은 6일 오전 나주시숲체원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3자 기관 간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제공〉

'이달의 5·18민주유공자'에 고 김행주씨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는 4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고(故) 김행주〈사진〉씨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당시 광주상고 야간부에 다니며 신문사의 수금사원으로 일했는데 1980년 5월 18일, 교련복을 입고 시내에 수금하러 다니던 중 계엄군에게 붙들려 구타당한 것을 계기로 시위에 가담, 시민군으로 활동했다.

김씨는 5월 22일 광주교도소 근방에서 7발(손 3발·다리 4발)의 총탄을 맞았다. 김씨는 수술 끝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나 부상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긴 후유증과 정신장애로 고통 속에서 살다가 1994년 젊은 나이로 사망했다.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 관계자는 "고(故) 김행주님은 제1묘역 3-67번에 잠들어 계시며 언제든지 참배를 하실 수 있다. 열려있는 국립묘지로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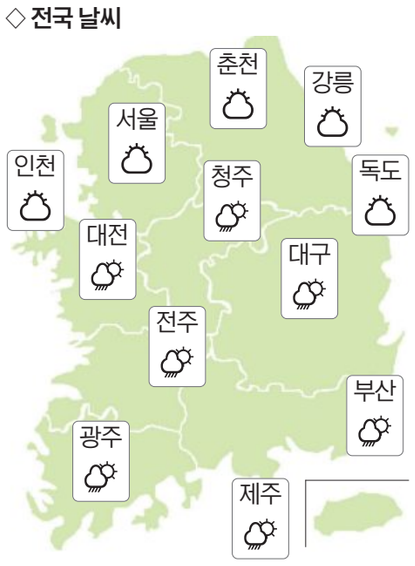
해뜸	06:12	달뜸	09:40
해짐	18:58	달짐	--:--

변덕쟁이 봄비

새벽부터 곳곳에 비 조금 내리다 오후부터 맑겠다.

광주	비온뒤갬	8/19	보성	흐린뒤 맑음	5/20
목포	비온뒤갬	7/15	순천	비온뒤갬	9/21
여수	비온뒤갬	11/19	영광	비온뒤갬	4/16
나주	비온뒤갬	4/19	진도	흐린뒤 맑음	5/15
완도	흐린뒤 맑음	7/19	전주	비온뒤갬	6/17
구례	비온뒤갬	6/21	군산	비온뒤갬	6/14
강진	흐린뒤 맑음	5/19	남원	비온뒤갬	4/18
해남	비온뒤갬	3/17	흑산도	비온뒤갬	7/14
장성	비온뒤갬	4/19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m)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0.5~1.0	0.5~1.0
	먼바다(북)	0.5~15	0.5~15
	먼바다(남)	0.5~15	0.5~15
남해서부	앞바다	0.5	0.5
	먼바다(서)	0.5~1.0	0.5~1.0
	먼바다(동)	0.5~1.0	0.5~1.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55	05:49
	22:49	17:31
여수	06:10	00:14
	18:10	11:57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낮음	높음	보통

◇ 주간 날씨

8(금)	9(토)	10(일)
6/23	9/24	10/25
11(월)	12(화)	13(수)
13/24	14/25	13/20

생활 게시판

화촉

▲정동환·조수인씨 차남 우신군, 김현철(금호고속 대표이사 사장)·최순선씨 장녀 세라양=9일(토) 오후 12시30분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 3층 컨벤션홀 062-610-7000.

▲최영호(한국전력 상임감사·전 광주 남구청장)·고(故) 진승자씨 장남 용복군, 김구현·김요순씨 장녀 정림양=10일(일) 오후 1시30분 광주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드메르웨딩홀 1층 르씨엘홀 062-228-0000.

알림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7일(음 3월 7일 庚寅)

☎ 010-9790-8237

子 36년생 객관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 48년생 시세와 국량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야 할 때가 되었느니라. 60년생 검증된 계획이라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72년생 오르막길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내리막길에 이르는 법이다. 84년생 허점이 보인다. 96년생 크게 상관될 바는 아니니 괘념치 말라.
행운의 숫자 : 32, 60

丑 37년생 본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대국의 조성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 49년생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61년생 근거 없는 소문에는 하등의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73년생 바라던 일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판세이다. 85년생 분수에 맞게 임해야만 복도 따르는 법이다. 97년생 뜻이 굳다면 이루고야 말리라.
행운의 숫자 : 56, 62

寅 38년생 순리를 거스르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50년생 아무리 좋아도 차제에 확실하게 청산하는 것이 길조를 부른다. 62년생 주변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이의 관심이 모아지는 현태이다. 74년생 대체로 순조로운 편이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86년생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98년생 제어할 수 있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42, 67

卯 39년생 쌓아온 공로가 자신의 입으로 무너질까 걱정된다. 51년생 이면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다. 63년생 일단 정지한 후에 재시도하는 것이 낫겠다. 75년생 서로 맞지 않다면 오히려 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알라. 87년생 원래부터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99년생 궁극적인 목표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11, 58

辰 40년생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바가 스스로 찾아올 것이니라. 52년생 깊은 인연이니 중히 여기는 것이 길운을 부른다. 64년생 제대로 호평받게 되는 뿌듯함이 있다. 76년생 노력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국량이니라. 88년생 넘어가려 하지 말고 밝혀야만 하느니라. 00년생 기존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08, 73

巳 41년생 입 안에서 맴돌아도 발설해서는 아니 된다. 53년생 오랜 인연으로부터 비롯되는 바가 깊고도 크다. 65년생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해결하면서 얻는 바가 많아서 보람은 느낄 것이다. 77년생 상대의 뜻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다. 89년생 의외의 길사가 보이니 기대해 볼 만하다. 01년생 예전과는 달리 흐름이 심상치 않다.
행운의 숫자 : 35, 64

午 42년생 용기보다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요구된다. 54년생 갈림길에 서 있으니 냉철해야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 66년생 기본적인 입장부터 제대로 정리해야겠다. 78년생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이뤄져야 확실한 효과를 보느니라. 90년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도를 조절하자. 02년생 절호의 기회가 다가온다.
행운의 숫자 : 09, 54

未 43년생 당면 했을 때 한계를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현장에서 곤혹스러워진다. 55년생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67년생 표현 방법에 따라서 설득력의 차이가 크다. 79년생 길운이 순조로움을 부르니 저절로 흥겨운 콧노래가 나올 것이다. 91년생 가볍게 통과 되겠다. 03년생 실리를 추구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02, 93

申 44년생 첫 눈에 마음에 든다고 길한 것은 절대로 아님을 알자. 56년생 파장에 남은 부스러기만 살피고 있는 형상이다. 68년생 머지않아 진면모가 드러날 것이니라. 80년생 본격적인 활동으로 들어가기에 양호한 시기에 이르렀다. 92년생 바라보고만 있어도 능히 효과가 있다. 04년생 절대로 무리수는 두지 말라.
행운의 숫자 : 33, 85

酉 33년생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야 뒤탈이 없다. 45년생 전후 사정의 인과 관계를 파악해야만 가닥을 잡을 수 있느니라. 57년생 사소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알자. 69년생 겉으로는 즐거운 체 하겠지만 속마음은 불편하리라. 81년생 어이없어서 말문이 콱 막힐 것이다. 93년생 치우치게 되면 후유증이 발생하리라. 행운의 숫자 : 20, 69

戌 34년생 빨리 벗어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46년생 감당하기 힘들다면 전혀 부담할 이유가 없다. 58년생 평생토록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70년생 드러나는 형태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82년생 곧 안정될 것이니 염려 말라. 94년생 자연스러움이 합리적으로 작용하리라.
행운의 숫자 : 36, 55

亥 35년생 강력한 기운이 감돌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리라. 47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만전을 기하자. 59년생 본래의 의지대로 행해야 후회하지 않으리라. 71년생 잘만 활용한다면 상당한 수익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 83년생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니라. 95년생 적부의 판단을 해야 할 입장이 된다.행운의 숫자 : 41, 99